

국가예산 확보 비상체제 돌입

군산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등 요청

강임준 군산시장이 예결위 예산안 조 정소위원회 예산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3일 국회를 방문해 막바지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군산사랑상품권 등 주요사업의 증액을 위해 예결위소소위 심의가 진행 중인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구 김관영 국회의원과 김수홍 국회 사무차장을 만나 긴급 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긴급 면담은 예결위 단계 정부 예산안 삭감이 매우 적고, 세수결손 4 조원 등으로 증액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산시가 마지막 예결위소소위 증액 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 공조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긴급히 진행했

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강 시장은 먼저 김수홍 국회 사무차장을 만나 예결위 소소위 증액 심의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군산시 예산 증액을 위한 국회 사무처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결위소소위 증액심사에서 김관영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여 군산시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사업이 최대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관영 국회의원은 "예결위소소위 증액심사에서 고용 및 산업위기



강임준 군산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역으로 침체된 군산시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이며, 내년도 국가예산 증액을 위해 마지막까지 설득과 협상을 이어나 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 예산안 심사는 2일 자정

을 기해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으로 예결위원장과 간사들 간 비공식 심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12월 6일 안에 막판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한 협상 타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의회, 본회의서 예산안 심의

또한 올해를 마무리하는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330억5천만원(2.9%)이 증액된 1조1천728억 9200만원으로 목적예비비,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한 지역 고용산업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둔 예산이 상정됐다.

시의회는 이번 3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가 편성한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있는 심의를 할 예정이며, 2018년도 최종 예산안은 오

는 6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날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정길수 의원이 제안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유출피해 방재를 위한 군산 화학재난 합동장제센터 설치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전북도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정 의원은 우리 군산지역은 유해화학물 취급업체가 전북도 사업장 수의 30%의 비중 뿐 아니라 취급량의 60%를 차지해 잠재적인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화

된 사전예방 점검과 안전교육 시스템이 미비하고 유해 화학물질 사고시 전문인력이나 장비 또한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11월 21일 소통동 소재 OCI 폴리실리콘 제조공장 내 플랜트 이송펌프에서 화학물질인 사염화규소가 누출되는 화학사고는 지난해 2015년 6월 발생한 사고와 동일한 화학사고가 또 발생해 군산시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길수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기업의 안정과 경쟁력을 제고 할 뿐만 아니라 화학재난 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전문화된 사전예방 점검과 안전교육을 위한 군산 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서울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업무협약

군산시는 3일 은평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양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지 지자체와 서울시 자치구를 1대 1로 매칭하여 군산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직거래로 은평구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355개소에 공급하는 사업이며, 3년에 걸쳐 참여 공공급식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식재료 직거래 뿐만 아니라 식생활 교육 및 도농간 교류·체합 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신청사 건립 시민설명회

익산시가 신청사 기본계획 시민설명회를 오는 5일 모현도서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최종계획안이 도출되기 전, 다양하게 수렴된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신청사 건립 기본방향 및 규모 등에 대한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주민편의시설 종류 적정 규모와 관련 시민 등을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내부행정망을 통한 직원설문조사를 2차례 실시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장전해이지구 지적 재조사

군산시는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북동 잠전, 해이마을을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해 협업 추진하고자 최근 장전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장전해이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앞서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상준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측량비부터 등기비용까지 비용부담 없이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사업지구지정 동의가 있어야 해당지

역이 사업지구로 지정되고 이로 인해 토지관련 분쟁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의 특성상 훼손 마순됨에 따라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일치 현상이 발생해 최신 측량기술로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중국 청도 주얼리기업 익산 방문 환영

익산시 방문 시찰 · 친교행사

중국 청도 주얼리기업이 지난달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2박3일간 일정으로 익산시를 방문, 익산제3공단 내 패션단지 시찰 및 친교 행사를 진행했다.

중국 청도 주얼리기업 일행은 10월 익산시가 건축한 임대공장에 입주한 (주)하이쥬얼(공동대표 방대표)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방 대표로부터 그간의 익산 공장 투자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오는 20일부터 익산시의 청도현지 투자설명회 시, 익산 현지시장을 뚝소 보고자 하는 방문 희망자에 대해 익산으로의 초청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중국 청도

주얼리기업들의 익산 방문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지난 29일 산업부 보도자료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 발표에 따라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 보조금 타당성 평가기준 간소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등, 유턴기업 이전이 좀 더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익산 패션단지의 여러 지원시설, 우리 익산이 가진 보석산업에 대한 노하우와 충분한 가능성, 유턴기업 인센티브 강화정책을 보시고 익산에 대한 좋은 기억과 좋은 선택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와 익산시의회가 각종 현안사업 및 예산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익산시, 시의회 의장단과 간담회

익산시와 익산시의회가 3일 각종 현안사업 및 예산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조규대 시의회의장 등 의장단이 참석, 시정 역점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익산시가 제일 먼저 협조 요청한 '광역상수도 전환 사업'은 한때 추진 논의가 활발했으나, 광역상수도 전환 시 상수도요금 상승 문제 등으로 추진이 보류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개방형 수로 사업에 따른 수질 오염 가능성과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추진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관심이 높다. 또한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민선 7기 역점 목표로 유라시아 철도 거점 기반 구축을 위해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추진과 남북교류 조례 제정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끝으로 분산 관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의 협조를 구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기에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의장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역점사업을 현명하게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규대 시의회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고, 오늘 논의한 내년 역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명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